

# 김종국 KIA 타이거즈 감독 “올 시즌 공격적 야구할 것”

“선수들, 기대만큼 잘 따라와... 부상·코로나19가 변수”

“느슨하지 않은 좀 더 공격 야구 하려해... 지속 요구할 것”

2022 프로야구 개막을 나흘 앞둔 29일 김종국 KIA 타이거즈 감독은 “올 시즌에는 불빛을 허용하지 않는 등 좀 더 공격적인 야구를 하겠다”며 “개막전부터 전력을 다해 시즌에 임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 감독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며 “(선수들이) 계속 주문한 대로 잘 움직였다. 시범 경기를 토대로 준비가 모두 잘 된 것 같다”며 “젊은 선수들이 기대만큼 잘 따라와줬고, 투수와 야수 모두 공격적인 면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선수들의) 정신 건강이 더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팀을 위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근 시범 경기마다 보여준 점진 끝에 거둔

승리에 대해서는 “점진 상황에서 이겨야 팀이 좀 더 강해진다고 생각한다”며 “시범 경기지만 역전승도 많이 거둬야 이기는 요령도 터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 빛을 허용하지 않는 공격적인 운영 방침을 시즌 중에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감독은 “나와 투수진 모두 느슨하지 않은 좀 더 공격적인 야구를 하려 한다”며 “이는 전략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또 “타자들에게도 헛스윙이든 파울이든 두려워하지 말고 치라고 주문했다”며 “공격적인 야구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감독은 시범 경기를 통해 투수 분야에서는 한승혁, 타자 분야에서는 김석환·김도영 선수가 두각을 드러냈다고도 말했다.

그는 “(특히) 김석환과 김도영은 초반에 선수진에 합류하지 못해 걱정했지만 지금은 기대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격려했다.

개막전을 나흘 앞두고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선수들의 부상과 코로나19 확산을 꼽았다.

그는 전날 SSG 랜더스와의 시범 경기 당시 공에 머리를 맞은 내성범 선수를 걱정하면서 “단순 타박상이라 다행이지만 지금은 누구든지 부상을 당해서는 안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관리를 잘 해주길 바란다”며 “만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 준비 명단에 오른 선수들을 풀업해서 맞춰갈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개막전에 출전하는 선수진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최근 시범 경기에 나선 선수진들과 비슷할 것”이라며 “선발 투수는 추후 따로 공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개막전 엔트리에 들지 못한 선수들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언제든 풀업할 수 있는 선수들인 만큼 준비를 잘 해달라”고 강조했다.



2022프로야구 개막을 나흘 앞둔 29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김종국 KIA 타이거즈 감독이 시즌 각오를 밝히고 있다.

라”고 강조했다.

뉴스

## 두산 개막전, 박철순·김형석·홍성흔·니퍼트가 연다

시대별 베이스 대표 선수 4명, 시구자로 초청



두산 베이스가 2022시즌 개막전 시구자로 박철순(왼쪽부터), 김형석, 홍성흔, 더스틴 니퍼트를 초청한다. (사진=두산 베이스)

두산 베이스가 각 시대를 대표했던 ‘스타’들과 함께 개막전을 맞이한다.

두산은 “4월2일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한화 이글스와 개막전에서 창단 40주년 맞이 각종 행사와 승리기원 시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

혔다.

승리기원 시구는 베이스의 역사를 만든 스타들이 나눠 맡는다.

원년 우승을 이끌었던 ‘불사조’ 박철순이 1980년대, ‘미스터 OB’ 김형석이 1990년대, ‘홍

포’ 홍성흔이 2000년대, 역대 최고 외국인 선수로 꼽히는 더스틴 니퍼트가 2010년대를 대표해 나선다.

두산은 “이들이 동반 시구를 진행해 베이스 팬 전 세대의 향수를 자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수단은 개막전 포함 5경기에서 원년 유니폼을 모티브로 새롭게 디자인된 창단 40주년 기념 특별 레트로 유니폼을 착용한다. 마운드에는 40주년 엠블럼이, 타자 박스에는 원형 엠블럼이 설치된다.

경기 전 애국가를 그룹 부활의 메인보컬로 활동하다 뮤지컬 배우로 거듭난 정동하가 부른다. 정동하는 지난 시즌 개막전에 애국가를 부를 예정이었으나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이날 종이 티켓은 역대 마스크들이 인쇄된 레트로 디자인으로 꾸며졌으며 올드 마스크 캐릭터가 경기장 곳곳을 누빌 예정이다. 또한 1루 내·외야 출입구에서 관중들에게 응원 클래퍼를 제공한다.

## 함평군청 레슬링팀, 제40회 회장기 전국 레슬링대회 ‘선전’...위상 재확인

금메달 1, 은메달 1, 동메달 1 획득

함평군청 레슬링팀이 전국 레슬링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레슬링 메카로서의 위상을 재확인 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함평군청 레슬링팀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철원군 철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0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금메달 1, 은메달 1,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서 남자 일반부 그레코로만형 김가빈 선수(63kg급, 25세)가 1위, 양시은 선수(77kg급, 27세)가 2위, 나병길(72kg급, 26세)

선수가 3위를 차지하며 각각 금·은·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윤성용 코치는 “코로나19로 대회 출전 기회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다음 경기에 대비 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전국 최고의 기량을 갖춘 우수한 선수들과 겨뤄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을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함평군청 레슬링팀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함평=김광훈기자

## “류현진, 2022시즌 반등할 선수” MLB닷컴 주목

지난해 31경기 등판했지만 평균자책점 4.37로 고전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이 25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더니든 TD 볼파크에서 열린 2022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의 시범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2회 투구하고 있다. 류현진은 1회 선두타자에 홈런을 허용하는 등 3이닝 4피안타 3실점 2탈삼진을 기록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이 류현진(35·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부활을 예상했다.

MLB닷컴은 28일(현지시간) 30개 구단에서 2022시즌 반등이 기대되는 선수 한 명씩을 선

정했다.

토론토에서는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의 이름이 불렸다.

매체는 “류현진은 매년 30차례 이상 선발 등판과 평균자책점 3.00 이하를 기록하는 게 개

인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보통 둘 중 하나를 이룬다”고 전했다.

이어 류현진이 2018시즌부터 2020시즌까지 매년 평균자책점 2.70 이하를 작성했고, 지난해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30차례 이상 등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31경기에 나선 2021시즌 평균자책점 4.37로 커리어 중 가장 높은 평균자책점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올해 류현진의 위치도 바뀌었다. 지난해까지 팀의 에이스 역할을 했지만 올해는 3선발로 예상된다.

지난 시즌 중 트레이드로 합류한 호세 베리오스가 1선발을 맡고, 겨우내 합류한 케빈 가우스만이 2선발을 차지할 전망이다.

풍부해진 마운드가 류현진의 부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분석이다.

MLB닷컴은 “류현진은 팀의 반등을 위해 데려온 첫 번째 투수였지만 올해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부담도 적어졌다”며 30경기 이상 등판과 평균자책점 3점 이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오를랜드 에슬레틱스 선수 중에는 ‘KBO리그 출신’ 에릭 테임즈가 반등이 예상되는 선수로 꼽혔다.

매체는 “테임즈는 2017~2019시즌 밀워키 브루어스에서 괴물 같은 모습을 보였다”며 오를랜드 1루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테임즈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지에 관심을 보였다.

## LPGA 루키 안나린, 세계랭킹 39위로 20계단 점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인 안나린(27)이 여자골프 세계랭킹 39위에 올랐다. 안나린은 29일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지난

주 59위보다 20계단 오른 39위에 자리했다. 올해 LPGA 투어에 데뷔한 안나린은 지난 2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스바드에서 끝난

LPGA 투어 JTBC 클래식에서 15언더파 273타를 기록, 3위에 오르며 데뷔 이후 최고 성적을 거뒀다.

JTBC 클래식에서 우승한 아타야 티피쿰(태국)은 14위에서 5위까지 뛰어올랐다.

뉴스

## 여수충무고 김민섭, 세계수영선수권 티켓 확보

여수충무고 수영 김민섭이 제19회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티켓을 확보했다.

전남체육회는 김민섭이 경북 김천에서 열린 KB금융그룹 코리아 스위밍 챔피언십(Korea Swimming championships 2022) 대회에서 점영 200m와 개인혼영 400m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김민섭은 내년 7월 열리는 19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김민섭은 이번 대회 점영 200m에서 4번 레인에서 출발해 꾸준한 페이스를 유지하며, 5번 레인의 문승우(전주시청)를 제치고 1분56초47의 기록으로 터치패드를 가장 먼저 찍었다.

또 개인혼영 400m에서도 6번 레인을 배정받은 김민섭은 7번레인 김민석(국군체육부대)을 치열한 접전 끝에 4분18초22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김민섭은 “지난 선발전보다 기록을 단축



전남체육회는 김민섭이 경북 김천에서 열린 KB금융그룹 코리아 스위밍 챔피언십(Korea Swimming championships 2022) 대회에서 점영 200m와 개인혼영 400m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전남체육회 제공)

해 만족스럽다”며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오상호기자

## 김가영, 천적 피아비 꺾고 LPBA 월드챔피언 등극

‘당구 여제’ 김가영(신한금융투자)이 ‘천적’ 스룡 피아비(캄보디아·블루원리조트)를 제압하고 여자프로당구(LPBA) 월드챔피언에 등극했다.

김가영은 28일 경기도 고양시 빛마루방승센터에서 열린 ‘SK렌터카 LPBA 월드챔피언십 2022’ 결승전에서 피아비를 상대로 4-1(11-7 6-11 11-5 11-1 11-1)로 승리했다. 피아비에 역대전적 3패로 열세였던 김가영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설욕에 성공했다. 김가영은 지난 시즌 월드챔피언십 결승전에서 김세연(휴온스)에 막힌 아쉬움도 완벽하게 털어냈다.

또한 김가영은 19-20시즌 SK렌터카 챔피언십, 21-22시즌 NH농협카드 챔피언십 우승에 이어 통산 세 번째 LPBA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김가영은 이번 대회 우승상금 7000만원(랭킹포인트 5만점)을 더하며 21-22시즌 누적상



금 1억원을 돌파(1억620만원), 시즌 상금랭킹 1위로 올라섰다.

김가영은 “너무 행복하고 좋다. 어제 준결승전에서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 어제 어떻게 결승전에 임해야 될지 굉장히 불안했는데,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